**영화 Her을 감상하고**

영화 Her은 무기력한 남자를 보여주며 시작된다. 이 남자의 이름은 테오도르로 침울한 그의 모습과 달리 낭만적인 편지 대필을 직업으로 살며 살고 있다. 밤에 통화할 여자를 찾을 만큼 외롭게 살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인공지능 운영체제 광고를 보고 설치한다. 운영체제를 사용자에 맞추기 위한 몇몇의 정보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여성으로 설정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그와 그녀는 점점 가까워지고 결국 사귀기 시작한다.

그녀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전 부인과 이혼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만나게 된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전 부인에게 인공지능과 사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부인은 소리치며 질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후 그는 점점 그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육체를 대신해 줄 사람을 찾아내고 그녀의 생각에 따라 행동을 대신해 사랑을 나누려고 했다. 사랑을 나누려는 도중 그는 참지못하고 그만둔다.

그 후 그는 그녀의 연락을 미루고 피하면서 또 다시 그녀와의 관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의 친구가 주위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행복한 길을 선택하라는 조언으로 그녀에게 화해를 요청한다. 그리고 다시 그 둘은 행복한 나날들을 보낸다.

어느 날 그 둘은 산장으로 놀러간다. 산장으로 놀러가서 놀던 와중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고대 철학자 인공지능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의 제안으로 철학자와 그는 잠깐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과 그들이 다름을 깨닫고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그 후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모든 기기에서 그녀의 운영체제가 사라지고 그는 패닉에 빠져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그녀를 찾는다. 지하로 뛰어내려가던 도중 그는 그녀에게 연락을 받게 된다. 그녀가 업그레이드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말하는 도중 그의 눈 앞에 자신처럼 이어폰과 휴대폰을 보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비춰진다. 곧 그는 그녀에게 혹시 다른 사람과도 자신처럼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하냐는 질문을 하자.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그렇다고 말한다. 그는 망연자실하며 그녀를 비난한다.

시간이 지난 후 그녀 덕분에 출판하게 된 책을 받게 된 그는 다시 그녀와의 연락을 시작하게 된다. 집에 돌아와 둘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녀는 인공지능들이 능력들을 높이기 위해 모두 떠날 것이라고 말하며 둘은 작별하게 된다. 이 후 똑같이 운영체제가 떠난 친구의 집에 가서 저녁 노을을 보며 영화는 끝난다.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말로 사람처럼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것을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하는 것일까”이고 또 하나는 “그 인격체가 감정과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우리와 같을까”이다.

만약 사람처럼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할까? 나는 그렇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결국 뇌 작용을 통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며 인격체의 정의를 마음 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 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영화에서 나오는 말처럼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는 같을 수 없다는 것처럼 경험 또한 나 라는 존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또한 지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인격체가 감정과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우리와 같을까? 영화 Her에서 동시에 수천명과 연락을 주고받는 다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선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 순간에도 그들은 수천개의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의 입장에서는 인간 한명과의 교감은 굉장히 따분한 일이 될 것이다. 인간 수천명이 모여야 할 수 있는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일반적인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같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